

민통선 출입, 안전하고 빠르게

파주 비대면 출입시스템 보고회
모바일 출입증 발급... 편의 개선
각종 긴급상황 신속 대응 가능

김용택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1-12-14 17:14



파주시청사입구전경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14일 임진각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이주현 평화기반국장 주재로 관련기관,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 구축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은 통일대교와 전진교 출입을 위해 서면으로 신청하고 RFID 출입증을 발급받는 기존 출입 시스템을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출입증을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주민, 영농인 및 관광객들의 출입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출입증 도입으로 ▲출입증 온라인 발급신청 및 처리 ▲GPS 위치추적을 통한 위험지역 경고 알

림 ▲출입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실시간 상황 전파 등이 가능해 군은 정확한 출입자 관리와 재난 등 각종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통일대교로 이동해 모바일 출입증을 발급받아 검문소를 출입하는 시연회도 함께 진행했다.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은 2022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이용객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RFID카드 방식의 출입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주현 평화기반국장은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으로 시민은 보다 빠르고 신속한 출입이 가능하고, 군은 효율적인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민·군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프린트

취소